

취업성공수기

학번	20180000	취업기관 명	용인세브란스
이름	김00	외국어 점수	토익 715점
학점	3.8/4.5	동아리 활동	심봉사, 토목달, 체소
전형방법	1차 서류접수 : 학점 3.0 이상 2차 AI면접 3차 실무진 면접 4차 경영진 면접 5차 신체검사		
취업기관 미션 및 비전	<p>Mission (사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p> <p>Vision: 용인세브란스는 첨단진료, 전문화, 의료기관간 유기적 관계 구축을 통하여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아시아 중심병원이 되고자 한다. 개척정신과 협동정신으로 새로운 연구영역을 창출하여 의학기술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이 되며, 다양하고 인간적인 교육으로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교육기관이 된다. 알렌, 에비슨, 세브란스의 정신을 이어받아 의료소외지역에 의료와 복음을 전파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의료선교기관이 된다.</p> <p>Strategy (실행전략):</p> <p>디지털 혁신 : 디지털 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미래지향적 의료생태계 구축을 선도한다.</p> <p>안전과 공감 : 고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하며 공감을 통해 신뢰받는 병원이 된다.</p> <p>하나의 세브란스 : 세브란스의 명성과 전문성을 이어받아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p>		
취업기관 인재상	<p>※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인재상을 기술하기보다는 실제 면접이나 합격한 사람들의 성향 및 이미지 분석 위주로 기술</p> <p>면접당시 같이 들어갔던 지원자들의 특성과 면접위원들의 표정, 그리고 1차면접 지원자와 2차면접 지원자의 차이점을 보았을 때,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거나 너무 쾌활(?)한 사람 보다는 약간 긴장은 하지만 목소리는 적당히 크고 또렷하며 질문을 다 듣고 차근차근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좋음. 자신의 차례가 넘어가도 4명 정도의 면접위원들이 계속 지원자들을 계속 보고 있으니 긴장을 풀지 말고 다른 지원자들을 경청하는 듯한 자세가 중요함.</p>		

	<p>외모나 입은 옷(세브란스는 치마만 입어야 한다는 소리가 있기도하지만 본인외에도 다수의 지원자가 바지를 입음.)이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1차면접때 눈에 튀는 복장이나 노출이 심하거나 머리모양이 단정치 않은 지원자들은 2차면접때 보기 힘들었음. 최대한 단정하고 깔끔한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느꼈음.</p>
<p>면접시 질문</p>	<p><질문예시></p> <p>AI면접- 자기소개, 지원동기, 장단점, 쉽고 간단한 질문들 (조원들끼리 갈등상황 시 내가 할 행동 등), 순발력, 이해력 등을 보는 12가지 정도의 게임 등을 함.</p> <p>1차면접-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를 포함해 1분내로 먼저 말해보라함. 딱히 실무적인 부분은 많이 묻지 않았으며 묻더라도 가벼운 수준에서 물어봄(아동통증사정법 등). 기성세대와 Z세대의 차이와 화합할 방법에 대해 물어봄. 질문을 동시에 두가지 정도 물어봤었는데 긴장하면 한가지에 대해서만 답할 확률이 높으니(대부분의 지원자가 한가지에만 답을 했음.) 침착하게 생각하고 대답하는 것이 좋음. 윗년차 간호사가 지시한 내용보다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이 맞다고 생각할 시에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물어봄. 국시 끝나고 입사 전 까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봄.</p> <p>2차면접-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는 생략함.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그런 간호사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이때 한 지원자가 학과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함. 면접위원은 꼬리질문으로 각 지원자들에게 자신이 공부한 질병 중 자신있는 질병을 한가지씩 골라 면접위원을 환자라 생각하여 요약해서 설명해달라고 함.) 1차면접보다 전공내용을 더 많이 물어봄(마약성 진통제, 강심제 등 사용시 주의해야할 점 등.).</p> <p><면접 분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면접은 분위기가 비교적 부드러웠으며 2차면접은 좀 더 경직된 분위기였음. ※ 면접위원 4명에 지원자 6명씩 (한 조에 6명) ※ 면접위원마다, 면접방마다 다름

본인이 생각하는
합격이유

면접위원의 눈을 피하지 않으면서 4분의 면접위원들을 골고루 쳐다보려고 노력했으며 (너무 왔다갔다 x 한 질문당 질문해주신 분이랑 그 건너분 정도) 준비했던 질문도 잠시 생각하는 듯한 시간을 가져 침착하고 또렷하게 대답을 했으며 생각해두지 않았던 질문이 나오더라도 미소를 잃지 않고 침착하게 생각하고 명료하게 대답을 했던 것이 이미지메이킹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함. 말하는 도중에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웃는 표정을 유지하며 다음 대답의 기회가 왔을 때 정정함. 속으로는 많이 긴장했지만 겉으로는 침착한 모습을 보이는 등의 태도가 다른 지원자들과 차이를 보였다고 생각함.

국제대학교 간호과